

옛 광주교도소 추가 유해 발굴작업 시작

5·18 행불자 암매장 여부 등 조사...31일께 발굴 결과 윤곽 송선태위원장 "28구 암매장 증언...교도소 전역 발굴해야"

신원미상의 유골이 발견된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공동묘지 인근에서 추가 유해 발굴작업이 시작됐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28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공동묘지 인근(2888㎡)에서 성공적인 발굴작업을 위한 개토제(땅을 다루고자 할 때 행해지는 제례)를 열고 발굴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개토제는 5월 3단체(5·18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법무부,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번 발굴은 지난해 12월 19일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솔로문로파크' 조성을 위한 진입로 정비사업 중 신원미상의 유골이 다수 발견되면서 추가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발굴은 2017년 옛 광주교도소 암매장 발굴조사(1~4차)를 했던 '대한문화재연구원'이 직접 나서 문화재 출토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들은 ▲학술조사처럼 정교하고 품위 있는 발굴조사 ▲유해(유골)매장의 역순으로 온전한 조사 실시 ▲유해(유골)와 관련된 모든 정보 확인 ▲유해(유골)가 발견 시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의 전문적 수습 ▲5·18 진상규명 차원에서 복원과 보존 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발굴 조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일 간이다. 실제 현장 발굴작업은 다음달 1일까지 5일간 진행되고 나머지 기간동안 향후 방향 논의와 보고서 작성 작업이 이뤄진다.

발굴 사전작업이 이뤄지는 1~2일 차(28~29일)에는 조사 대상 부지에 있는 잡초 제거 등 주변정리와 안전·보안 시설물을 설치하게 된다. 사전 작업을 마친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유해·유골 발굴을 위한 트랜치 조사(굴착:땅을 파서 하는 조사) 방식의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이뤄진다.

발굴조사단 5명, 작업 인부 6명, 굴삭기 1대를 동원해 표토층을 50cm정도 파내 암매장의 흔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조사 마지막 날인 2월 1일에는 토층 원상 복구 후 기초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모든 조사 과정은 사진과 도면 등 기록으로 남긴다.

조사과정에서 유해·유골 등 암매장과 관련된 물증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5·18기념재단은 검찰·경찰·관련 전문가(고고학자·법의학자·치의학자·형질인류학자 등)·5월 단체 등 유관기관에 알리고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발굴작업을 맡은 정일 대한문화재연구원 실장은 "인근에서 신원미상 유골이 발굴된 만큼 신중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며 "이달말이면 대략적인 조사 결과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 조사 결과 발표 시점은 재단 측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토제에 참석한 송선태 5·18진상조사위원장은 "5·18이후 옛 광주교도소로 재편성된 투입군이 사체를 처리했다는 증언과 28구가 암매장됐다는 보고가 있지만, 11구만 발견됐을 뿐 나머지 17구는 40년간 의문으로 남아있다"면서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던 옛 광주교도소 전역이 추가 발굴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진상조사위 조사관 구성이 마무리되는 2월 말께부터 다른 추가 발굴조사는 진상조사위가 주관해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직접적인 우리 일이라 생각하면서 예의주시하고 관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8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묘지 인근에서 본격적인 발굴 작업에 앞서 굴삭기를 이용해 잡초 등이 쌓인 표토층의 제거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4 | 해질 17:57 | 달뜨기 10:10 | 달짐 21:57

포근한 하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리겠다.

광주	흐림	5/10	보성	흐림	1/9
목포	흐림	4/7	순천	흐림	5/11
여수	흐림	6/10	영광	흐림	2/8
나주	흐림	2/10	진도	흐림	4/9
완도	흐림	5/10	진주	가름히리고비	3/9
구례	가름히리고비	3/10	군산	가름히리고비	2/9
강진	흐림	3/11	남원	가름히리고비	2/9
해남	흐림	2/9	흑산도	가름히리고비	6/8
장성	흐림	3/10			

◇바다 날씨

지역	풍향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안바다	서~북서	0.5~1.0	서~북서	1.0~2.5
	면바다(북)	서~북서	1.0~2.0	서~북서	1.5~2.5
	면바다(남)	서~북서	1.0~2.5	서~북서	1.5~2.5
남해서부	안바다	서~북서	0.5~1.0	서~북서	1.0~2.0
	면바다(서)	북서~북	1.5~2.5	북서~북	1.0~2.5
	면바다(동)	북서~북	1.0~2.5	북서~북	1.0~2.5

◇생활지수

감기	보통
뇌졸중	보통
미세먼지	좋음

◇물때

지역	간조		만조	
	09:56	22:27	04:35	17:08
목포				
여수	05:20	17:55	11:50	23:56

◇주간 날씨

30(목)	31(금)	2/1(토)	2(일)	3(월)	4(화)	5(수)
☁	☀	☀	☀	☁	☁	☀
1/9	0/7	-1/8	0/9	-1/9	0/9	-2/6

동신대 '국가인적자원개발 서남권 허브사업단' 선정

동신대학교가 광주와 전남·북, 제주권 기간을 더 늘어날 수 있다. 국가인적자원을 포괄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기관인 '서남권 허브사업단'으로 선정됐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서남권 허브사업단은 올해부터 연간 10억원 이내의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아 앞으로 최소 6년 동안 광주와 전남·북,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을 위한 공동훈련센터를 운영·지원한다. 사업 성과에 따라 운영

개발컨소시엄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직업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체계를 구축해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교육훈련사업이다.

서남권 허브사업단은 자체 연수원을 갖출 수 없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연수원을 공동으로 직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채희중 기자 chae@

광주 동구 공약이행 점검 '구민평가단' 36명 위촉

광주시 동구가 민선 7기 공약이행 사항을 주민이 직접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2020년 구민공약평가단'을 위촉했다.

28일 동구에 따르면 구민공약평가단은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동구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18세 이상을 대상으로 공모해 모두 88명이 신청·접수했다. 이를 다시 지역별·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분류한 뒤, 공약이행평가위원회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36명을 선정했다.

구민공약평가단은 주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해 공약을 평가하고 발전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과의 교감을 통해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꾸러졌다.

평가단은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동구'라는 민선 7기 구정 목표 아래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 민생경제 ▲도시환경 ▲마을복지 ▲생활문화예술 ▲자치공동체 등 5대 분야 42개 공약사업을 평가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경찰 5·18사료발굴팀, 옛 전남경찰청 내부 사진 찾았다

고 안병하 국장 사진첩서 발견
도청 복원추진단에 제공 예정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5·18 경찰 관련 사료 발굴에 나선 광주 경찰이 옛 전남경찰청 내부 사진 자료를 발굴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28일 광주지방경찰청 '경찰 5·18 사료 발굴 TF(태스크포스)'에 따르면 1980년 5·18 이전의 전남 경찰국장실과 회의실 내부 사진을 찾아냈다.

옛 전남도청 공간 복원을 지원하기 위해 옛 전남경찰청의 본관·민원실·상무관 등과 본관 2층 등에 대한 자료 수집에 나선 광주 경찰은 고(故) 안병하 당시 도경찰청장의 유족이 보관하던 사진첩에서 1979년에 찍은 경찰국장실과 회의실 내부 사진을 발견했다.

당시 전남경찰청 내부 사진이 회귀 자료로, 광주경찰은 옛 전남도청 복원단에 제공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TF는 옛 전남도청과 경찰청 청사 복원 사업을 지원하고, 당시

민주·인권 경찰상 재조명하기위해 광주경찰 관련 5·18 사료를 수집하고 있다.

TF에서는 1단계 조사와 사료발굴을 마치면 2단계로 자료를 정리해 복원단에 제공하고, 2월 말까지 광주경찰청에 사료관을 구축해 발굴 자료를 보관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TF 관계자는 "내부 복원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경찰국장실과 회의실 사진 자료가 발견됨에 따라 옛 전남도청 복원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5·18 40주년 기념행사 국민아이디어 공모

5·18광주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념행사 국민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이디어는 ▲공동체 정신 함양 ▲역동적인 행사 전개 ▲전국민과 세계인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 축제의 장 제시 ▲5·18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국민적 공감 대확산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접수는 다음달 13일부터 27일까지로, 참가신청서와 제안서를 5·18행사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인 2건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